

(焚身自殺)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이창언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논문요약〉

그동안 분신자살에 대한 논의는 정치적으로 편향적 해석과 목적성이 전제된 역사기술의 한계를 보인다. 이 논문은 그 한계를 넘어 분신자살을 더욱 분석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 논문은 개인의 가장 극단적이고 고통스러운 죽음인 분신자살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학생운동 참가자의 주관적 의미구성의 사회·역사적 과정과 그것이 객관적 경험과 접합되는 지점을 추적한다. 이 논문에서는 분신이 발생하는 구조와 메커니즘을 해명하기 위해서 정치적 기회구조 외에도 개별행위자와 귀속적 집단 간에 공유하는 감정과 신념, 상황적 요인과 행위자의 주관적 상황판단과 결단 등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분신자살의 구조와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분신자살이 현실에 안주하려는 대중에게 체제의 부정의를 설파하여 저항의 의미체계를 제공하는 한편 의례와 상징을 통한 운동의 재활성화라는 전략을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경험적 사례를 통해 볼 때, 분신자살은 각 시기에 존재하는 특정한 역사적 상징과 담론 자원을 동원하고, 그것을 저항담론으로 '구성' 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나아가 분신자살은 기억의 영구화라는 의식적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 저항성과 조직력을 강화하며 '행위와 집단' 간의 상승작용을 도모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상징과 의례를 통해 저항담론의 사회적 확산을 의도

하며 준비된 자살은 소영웅주의적·허무주의적 분위기에 감염된 사회적 병리 현상이나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논증한다. 오히려 이 논문에서는 분신자살에 대해, 개인이 자신의 생존욕구에 근거한 집합적 의무감을 역사적 행위자로서의 집합적 정체성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사회적 구성과정의 한 형태로 위치 지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주요어: 학생운동, 분신자살, 집합행동, 역사적 행위자, 집합적 정체성, 의미의 사회적 구성, 의례와 상징

1. 들어가며

1) 연구의 목적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항거의지를 직·간접적으로 드러낸 분신자살은 저항의 극단적 형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화운동의 촉매제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들의 희생은 한국사회 운동사의 최정점에서 사회운동을 촉발·형성시키거나 투쟁의 전선을 확대·고양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다.¹⁾ 때로는 그것이 과잉정치화되거나 과소정치화됨으로써 제대로 된

1)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집계에 따르면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당시 집단적으로 살해된 이들을 제외하고 1950년대 이후 운명한 열사·희생자의 수는 모두 500여 명에 가깝다고 한다. 이들이 죽음의 형태는 분신, 할복, 투신, 음독, 고문, 사고, 폭행, 총상, 익사, 병, 교수형 등으로 각기 다양하지만, 지배세력과의 저항과정에서 저항주체를 형성하거나 저항을 폭발시키고 때로는 저항역량을 전이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저항의 힘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자살행위가 우리사회에 준 충격과 그 파장이 절대로 작지 않았다.

그러나 분신자살을 포함한 자살행위는 여타의 사회운동은 물론이거니와 정권에 의한 직접적 공격에 의한 죽음(타살)과는 달리 학문적으로 깊이 조명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국가권력이 레드 콤플렉스를 활용한 이데올로기적 공세도 한 몫 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학계 내에서 보인 사회운동차원의 분신자살 성격을 둘러싼 이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집합행동을 공유된 이익을 추구하거나 기존제도의 변동을 추구하는 사회운동에 초점을 맞춘 연구자들의 시각에서 볼 때 분신자살이 비동조적이고 목적지향적이라는 지적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들은 분신자살이 단순히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이며 개별적인 결의와 결단에 의존하는 개인적 성격의 행위로 인식한다. 나아가 주제의 성격상 “죽음의 정치”에 대한 혐오와 왜곡된 도피심리, ‘죽음과 폭력’이 동일한 내적 논리구조를 갖고 있다”는 일종의 비판적 거리 두기(조현연 2001)도 연구의 활성화에 제약요인이 되었다. 여기에 더해 연구대상 자체가 연구하기에 쉽지 않다는 점이었다. 어떤 역사적 개인이 죽음의 동기와 배경을 특정한 기준과 잣대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자살문제의 규명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분신자살에 대한 연구는 주로 진보진영의 활동가들, 특히 추모단체를 중심으로 역사기술적 접근과 설명적 인과관계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분신자살을 사회운동조직의 운동문화와 지속적인 교호과정 속에서 해석하고 사회적 맥락 안에서 분석하는 연구 흐름은 그다지 활성화될 수 없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민중운동에 대한 더욱 분석적이고 해석적 연구를 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민중운동의 침체와 새롭게 등장한 시민사회의 활성화란 상황에 직면하면서 연구 의지가 많이 약화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주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연구가 정체·담보되어 있는 현실에서 비롯되었다. 이 연구는 분신자살에 대한 기존의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분신자살의 역사적 의미 복원과 함께 집합행동 내지 사회운동으로서의 분신자살에 대한 성격규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나아가 과도한 목적성이 전제된 역사기술을 비성찰적으로 적용한 선행 연구의 한계를 넘어 분신자살을 더욱 분석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분신자살 결행자의 주관적 의미구성의 사회·역사적 과정과 그것이 객관적 경험과 접합되는 지점을 추적한다. 구조중심적인 설명이 간과한 운동문화와 행위 간의 역동적 관계를 고려하여 집단적 기억과 해석의 틀이 자살이라는 행위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개인의 죽음과 조직의 상승작용 같은 분신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분신자살이 개인의 일탈행동이 아닌 자신의 생존욕구에 근거한 집합적 의무감을 역사적 행위자로서의 집합적 정체성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사회적 구성과정, 즉 사회운동이자 집합행동의 한 형태였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2) 연구 대상과 방법론

이 연구는 국가에 의한 ‘정치적 살해’라는 기존의 논의에 바탕을 두면서도 귀속집단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자의 대응전략 변화라는 차원, 즉 분신자살의 능동적이고 집합행위적 특성에 주목한다. 따라서 자살을 둘러싼 다양한 이론적 제 논의들 중, 초기 집합행동론인 전염이론, 정신병리학적 이론을 비판함과 동시에 사회운동의 합리적 설명모델과 정서적 설명모델의 통합을 통해 접근하고자 한다.

연구 시기는 분신자살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1980년 중반부터 학생들의 분신이 거의 사라진 1997년 국민의 정부 등장 전까지다. 연구 대상은 권위주의 시대 민주화운동 전면에 섰던 학생운동이다.

이 연구는 분석적 수준에서 세 가지 차원에서의 방법론적 연계를 모색한다. 첫째, 분신자살의 동기와 과정,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역사와 사회구조적 모순을 고려하면서도, 참여주체의

동기와 갈등에 대한 사회학적·해석학적 분석 틀의 결합을 시도한다. 해석학적 접근은 어떤 현상들을 쉽게 분류해 버리는 것을 지양하고 사물이나 사태를 그의 전후관계나 상황을 통해서 파악하는 사물 자체의 맥락적 연구를 수행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둘째, 사회학과 역사학적 방법론을 연계한다. 이 연구는 구체적인 사료해석을 토대로 하여 개념과 이론의 적합성을 검증함으로써 그것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셋째, 이 연구는 행위자의 집합적 정체성 형성이 기존의 정치·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적용하는 과정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위치 지어진 개인이 복합적 조직의 장(multiorganizational field)에서 상호 작용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자로 변모하는 과정을 사례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²⁾

2. 분신자살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접근법

1) 분신자살의 정의

인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는 다양하다. 한 사회에서 자살은 심리적 요인과 경제·정치적인 생활양식, 종교와 도덕, 철학적인 전통과 관련이 있고 문화의 발전단계와도 상관이 있다. 이는 자살이라는 현상이 어

2) 이 연구의 시각은 운동담론이 항상 일관되고 정교한 형태로 개인에게 제시되지 않으며, 또한 단일한 담론이 개인에게 완벽하게 체화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관련자들의 신념, 생각, 기억 등을 그들의 언어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통해 다양하고 폭넓은 참여자들의 동기와 관점을 최대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구술사 방법론은 대단히 유용한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구술사 방법론은 한 개인의 운동 참여와 집합적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준 다양한 동기와 시각을 보여줄 수 있으며 기존 기록물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해석을 넘어서 새로운 역사구성을 가능케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구술사 방법론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짧은 연구기간, 연구자의 주제적 역량의 한계로 인해 이 부분은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면 생리학적인 원인이나, 우연적·개인적 사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사회적 현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살이라는 현상에 양적인 연구와 질적 비교를 수행한 에밀 뒤르켐은 “자살이란 희생자가 스스로 행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어떤 행위에서 비롯되고, 그러한 행동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스스로 아는 경우”라고 말한다.

어원적으로 볼 때 자살(suicide)은 라틴어로 sui(자기자신)와 cide 또는 cidium(죽인다)의 의미가 결합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자신에게 위해(危害)를 가하여 스스로 생명을 끊고자 하는 인간의 행동”이라 정의된다. 자살은 죽음이 유발된 경우에만 발생하며, 자신의 행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자살은 도피적인 측면도 있지만 “자신의 생명에 대해 어떤 시도를 함으로써 존재론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행동(Baechler 1975)”으로 행위의 능동성을 내포하기도 한다. 따라서 일부 심리학적 이론에서 말하는 ‘어떤 비정상적인 열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행위’ 즉, 목적과 수단의 괴리, 역할갈등, 좌절로 인한 도피, 주변에 대한 복수와 같은 사회병리적인 현상으로 자살을 일반화하는 이러한 개념정의는 자살에 대한 표면적 개념정의일 뿐 모든 유형의 자살행위에 대한 적절한 동기와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자살행위가 도구적이거나 목적합리적 성격을 띠는 경우 그러하다.

최근에는 자살을 ‘사망한 사람이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결과에 대해 알고 있거나 예상한 상태에서 원하는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하거나 이행한, 치명적 결과를 수행한 행위’로 정의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자살은 행동의 의도와 동기, 결과(죽음)를 갖는 의식적 주체의 자발적 행위로 설명할 수도 있다.³⁾

3) Maris(2000)에 따르면 “의도(intent)는 행위자가 특정한 수단(자살)으로 어떤 결과(죽음)를 유발하고자 하는 목적”을 말한다. 이는 “자살을 하려는 이유에 해당되는 동기(motive)와 혼동될 수 있는데, 동기는 자살생각이나 의도 이전의 추동적인 힘(a driving force)이며 미래의 사회적 환

분신자살도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는 치명적인 자살행위 방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불 때 자살의 의도 수준에서도 죽으려는 의도가 없는 ‘도구적 자살 관련 행동’과는 차원이 다른 ‘자살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분신자살의 의도 이면에는 강한 열망과 목표를 갖는다는 점에서 단순한 도피나 사적 복수심이 아닌 이타성이 강한 동기를 내포하는 죽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분신자살의 의도와 동기의 정치·사회적 특성을 인정하면서도 분신자살을 집합행동(collective behavior)⁴⁾이 아닌 개인의 일탈행동으로 규정하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한다. 분신자살이 기존의 규범, 제도, 정책, 가치에 대해 비동조적 행동을 취한다는 특징에도 불구하고 다수 개인들의 공동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집합행동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집합행동에 대한 물이해에 불과하다. 고전적 군중행동이론에서조차 군중행동의 촉발요인을 집합행동의 과정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분신자살은 개인적 결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체제의 부정의성을 드러내는 ‘정치적 행위’이자 ‘대의를 위한 최고의 희생’을 의미하고 방관자나 반쪽 참여자들의 무관심과 비협함을 성찰하게 하여 일상으로 철수하려는 사람들의 퇴로를 막으려 한다는 점에서 집합행동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김효정 2002).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정치적 자살항거의 주를 이루었던 분신투쟁은 극단적인 자기희생을 통해 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운동의 대상과 방관자들에게 분명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정치적 자살’로 보아야 한다. 분신자살은 정의롭지 못한 국가와 자본의 직·간접적인 폭력에 따라 민주주의가 억압되고 생존권과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에서 가장

정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Silverman 2007; 이해선 2008 재인용).

4) 스멜저(Smelser 1962)는 집합행동을 “기존의 규범, 제도, 정책, 가치 등의 변화(때로는 보수)를 지향하는 다수 개인들의 신념에 기초한 적극적인 공동행동”으로 정의한다.

강력한 의사표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뚜렷한 체제부정을 표출하는 대학생 분신자살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 경제, 사회적 현실의 모순에 대한 절망과 비판의 표시이자 극단적인 자기 부정의 방법을 통해서 동료와 투쟁 대상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려는 목적하에 선택된 집합적 의사를 표현한 정치적 자살이라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자살은 이기적 자살과는 달리 희생적 자살로 구분될 수 있으며 뒤르켐이 말하는 이타적 자살⁵⁾과 유사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공동체의 암묵적 강권, 찬양이라는 부추겨지고 저질러진 강요된 자살이라는 측면보다는 자기결단, 자아성찰성에 기초하여 타자지향적인 성격의 자살이라 할 수 있다.

2) 분신자살 연구의 시각과 흐름

한국에서 분신자살에 대한 논의는 엄밀한 개념적 정의로부터 분신자살의 구조와 메커니즘, 행위의 결과리는 차원에서 분석되기보다는 자살의 동기와 목적, 분신자살의 한국적 특징을 규명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분신자살을 설명하는 시각차도 상당히 컸는데, 분신자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인식론적 관점이 대립하고 있다. 먼저 보수적인 시각은 분신자살을 ‘죽음을 무기로 한 체제 전복세력의 반인륜적 행위’나 ‘죽음을 찬미하는 소영웅주의적·허무주의적 분위기의 집단 감염·확산에 따른 병리현상’으로 규정해 왔다. 개인의 분신과 결핍, 혹은 과잉된 이데올로기, 특정 집단의 배후를 강조하는 논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왜 분신을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만족할 만한 대답을 주지 못했다. 그 이유는 죽

5) 뒤르켐(1994)의 이타적 자살은 한 집단의 이념구조와 강력하게 결합된 개인들이 그룹에 완전히 흡수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러한 자살은 선택성과 자발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가치와 결합된 정도가 강하고 동시에 사회의 암묵적 권유와 찬양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개인적 행위라 할 수 없다.

음의 방법이 얼마든지 분신이 아닌 방법을 택할 수가 있으며, 둘째는 자살 수단이 전염⁶⁾된다는 해석은 일종의 자살경향에 대한 해석이지, 그 자체의 원인에 대한 설명이 아니기 때문이다(노성환 1995).”

한국의 지배세력의 경우 이른바 ‘국가 폭력의 네트워크’ (조현연 2000)를 대대적으로 작동시켜 분신 투쟁의 실제적 진실을 은폐, 왜곡시켜 왔다. 반공 이데올로기와 적색 공포증으로써의 레드 콤플렉스 동원, 반동적 보수언론과 권력형 해바라기성 지식인들의 집중 포화가 분신 투쟁에 퍼부어지는 것이다. 지배집단은 분신투쟁 발생의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배경은 도외시한 채 개인적 차원의 인간성이나 잠재화된 심리적 측면, 비판, 불우한 가정환경 등에 초점을 맞춰 해석하는 것을 즐겨 사용해 왔다. 또한 ‘희생양의 정치’를 통해 이를 불의한 권력의 온존·강화에 악용하였다(조현연 2000). 다음에 인용한 글은 1991년 분신정국 당시 보수적 인사와 보수 언론이 바라보는 시각의 단면을 보여준다.

“지나친 말이 될지 모르겠으나 신입생이나 2학년생의 경우 레크레이션 정도로 생각하고 (시위) 모여드는 것이 아닌가 싶은 느낌마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_ 현승중 (한림대 총장, 교총 회장)

“입학한 지 2개월 된 신입생이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얼마나 느끼고 행동했길래 그를 열사라 부르는가— 그는 배후 조종된 선배들에 이

6) 이규동(1991, 444-447)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살자의 공통된 심리적 특징의 하나는 모두가 고독하다는 점이다… 죽으려면 왜 아무도 모르는 속에서 죽어야 하는가, 그럴 바에는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고 죽겠다는 자기헌신 욕구적 자살형도 있다. 우리나라의 5-6월은 자살철이라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규동의 이러한 주장은 일종의 억지에 가깝다. 사회가 근대화될수록 이타적, 이기적, 아노미적 자살의 경향이 강하다(뒤르켐 1994)고 하지만, 오히려 한국의 경우는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이타적, 운명주의적 자살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1990년도 세계보건기구(WHO)통계연감을 보면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일반 자살률이 세계 23위였지만, 한국의 자살은 ‘정서적 표출적’ 자살과 ‘도구적, 목적 지향적 자살’로 나뉘었을 때 후자가 더 강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끌려 시위 도중 도망가다가 맞아 죽은 것일 뿐” _김동길 (연세대 교수)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반생명적인 선동세력의 정체를 폭로해야 한다”, “김 씨 등의 잇따른 분신을 보면 우리 사회에는 젊은이들에게 죽음을 선동하고 이용하는 음흉한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 “이 세력을 없애는 데 함께 일어나야 한다.” _ 박흥 (서강대 총장)

“자살은 성실하고 진지한 개혁의지의 반영이 아니라 감상적 이상주의자들의 나약한 허무주의를 드러낸 것일 뿐이다. 자기 한사람의 생명조차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겨레를 사랑하고 인간의 생명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_ 『조선일보』, 1991. 5. 5 사설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인 분신자살이라는 비극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젊은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분신의 근본적 원인 제공자인 공안통치의 폭력성에 대한 비판은 전혀 엇볼 수 없다. 이들에게 지배·억압의 폭력과 저항·해방의 폭력 구분은 전혀 무가치했던 것이다. 이들은 겉으로는 폭력의 차별적인 형태를 구별하지 않고 ‘폭력은 파괴’라는 전제 아래 폭력 일반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비판하면서 마치 비폭력을 절대적으로 추앙하는 척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들은 법의 잣대로 폭력의 경계를 설정하고 나아가 공권력의 이름으로 국가폭력을 정당화시킴으로써 잘못된 지배와 권력관계의 재생산에 기여해 온 것이다.

이와 달리 역사·구조적 접근은 시대상황의 산물로서 분신자살이 갖는 저항적 측면에 의미를 부여하며, 이에 대한 개념 정립을 시도했다. 이러한 접근에 따르면 분신자살은 “변화를 추구하는 강력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지배 권력의 압도적인 폭력성으로 인하여 이를 실현할 수단을 갖지 못할 때, 약자가 최대한의 도덕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치열한 무기로서 선택”(최장집 1993; 1996; 조현연 2000)한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분신자살은 “자기희생을 통해 대중의 도덕적 분노, 힘의 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천(김정환 1999)”이자 “적을 향해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자기부정의 방법을 통해서 동료와 투쟁의 대상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려는 목적하에 선택(김동춘 1997)”된 행위로 그 의미가 전자의 시각과는 다르게 설정된다. 이러한 시각에선 분신자살의 원인을 국가폭력과 상관을 통해 설명하고 있으며 “공동체주의와 도덕적 요소가 인간관계에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저항의 방법(김동춘 1999)”임을 강조하기도 한다.

1990년대 중반에는 해외의 분신과 한국의 분신자살 사례를 비교, 유형화하는 동시에 한국 분신자살의 특징을 도출하려는 연구도 시도되었다. 한국의 분신자살은 종교적 의미의 인신공의형 분신이나 순사형 분신(노성환 1995; 1999)과 다른 정치적 자살로써의 성격이 강조되고 있다. 분신자살의 배경에 대한 종교·문화적 연구도 진행되었으나 그 성과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의 논의는 분신자살의 한국적인 특수성을 강조한 나머지 한국 사회운동의 특수한 레퍼토리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분신자살을 동양적 특수성으로, 이를 유교나 불교와 같은 동양의 종교와 문화의 영향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의미있는 인과관계를 해명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치적 사망자의 경우 한국이 제3세계보다 많지 않지만 분신자살은 한국에서 대단히 많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자살, 혹은 분신자살 항거는 한국이나 동양사회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며⁷⁾ 분신자살과 유교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7) 베트남에서 승려들이 정부의 종교정책에 반대하여 분신을 감행했다. 이에 영향을 받아 미국에서는 모리슨(Norman Morrison)이라는 반전 운동가가 국무성 계단에서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 반대를 주장하며 분신하였고, 연이어 로마 가톨릭 신도였던 대학생이 유엔 본부 앞에서 분신하였다. 칠레에서는 자녀의 체포, 수감에 항거하여 그 아버지가 분신하였으며, 체코에서는 잔 팔락(Jan palach)이라는 대학생이 구소련의 군사침략에 항거하여 “프라하의 봄” 기간에 분

보인다. 한국의 전통적인 자살방법은 신체발부수지부모(身體髮膚受之父母)라는 유교적 사회 규범의 영향으로 신체에 대한 자기 파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행해졌다는 특징이 있다.

문화적 차원에서의 연구는 분신자살의 배경적 요인에 대한 분석보다는 의례를 통한 기억을 주기적으로 되살려 상징적 및 정서적 효과를 영구화하는 기능을 분석하여 일정한 학문적 성과를 낳기도 하였다. 국내 연구자는 아니지만 한(恨)의 역할을 통해서 열사의 탄생 과정을 추적한 미나베 유우코(眞鍋祐子 1997)의 연구는 한국의 운동진영에서 열사의 죽음이 어떤 형태로 승화되어 운동에 능동적인 힘을 불어넣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열사의 탄생과 생성과정(죽음의 수용과 의미부여의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다.

최근에는 더욱 미시적이고 중범위적 차원에서 “적에게 가해져야 할 공격행동이 자신에게 행해지는 분신자살은 집합행동의 유형 중 ‘퇴장을 통한 저항의사 표출 전략(voice by exit strategy)’ (김효정 2002)”이라는 차원에서 분석이 시도된 바 있다.

3. 분신자살의 구조와 메커니즘

1) 분신자살의 등장과 원인

(1) 구조적 긴장—체제의 부정의, 분노와 절망

과잉정치사회라 불릴 만큼 1980년대 한국 정치구조는 대체로 국가정치의 요소가 다른 정치 요소들을 압도하는 양상을 띠고 전개됐다는 특징이

신하였다. 그 외에도 중국, 인도, 티베트, 영국, 터키 등에서도 분신자살사례가 보고됐다. 자세한 내용은 노성환(1995; 1999)을 참고하라.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적나라한 폭력 정치가 전(全)사회에 만연해져 과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정치적 대립의 기본 구도는 사회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공적 폭력의 독점체로서의 비정통적인 국가권력과 이에 저항하는 시민사회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단순화해서 파악할 수 있다(최형익 1999, 90). 전두환 정권이 보여준 집권과정에서의 폭력성과 통치과정에서 보여준 억압성은 반대세력과 집권세력 간 타협의 여지를 애초부터 제거하였다.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자행된 막강한 관권·금권 부정선거, 진보세력에 대한 금단과 배제의 정치, 유신 이후 전두환에 이르는 간접선거(체육관 선거) 방식은 진보진영으로 하여금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공간으로 진출할 가능성에 대한 사고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게 만들었다. 기본적인 절차적 민주화에서 시작하여 정치적 민주화, 사회경제적 민주화, 생산자 민주화, 대외적 민주화의 규칙을 제정할 수 없는 상황이 ‘국가의 민주화’를 중심의 제로 상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되었다(손호철 2003).

자율적인 정치적·사회적 공간자체가 군부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제약되는 상태에서 저항세력은 국가 민주화 없이 사회 민주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속에서 “합법적 권력 이행의 경로가 아닌 폭력적 이행만이 가능하다”라는 사고의 일단을 형성하였다. 전두환의 등장으로 “학생운동의 노선, 구호, 용어는 모두 군사적인 색채를 지니기 시작하였으며, 그들은 체제의 직접적인 전복을 운동의 목표로 하였다”(김동춘 1997, 79). 서울대에서 배포된 유인물은 전두환 정권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를 보여준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전두환 파쇼 독재정권에 대한 모든 민중의 처절하고 끊임없는 민주, 민족, 민중 투쟁만이 있을 뿐이며 민족사의 정의로운 발전을 이루는 투쟁의 대열에 나설 수 있을 뿐이다. 저들과의 투쟁에 있어서는 한순간의 침묵도 타협도 양보도 있을 수 없다. 아무리 극악한 상황이라도, 아무리 저들의 보복과 탄압이 심하다 할지라도 민중의 시체를 눈물로 딛고 나아가는 투철한 싸움 속에서만 적들

은 그들의 더러운 정체를 드러내고 그 허점을 드러내어 또다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모든 권력과 금력을 독점한 전두환 파쇼 정권에게는 안정만이 살 길이지만 그러나 더 이상 빼앗길 것조차 없는 우리들에게는 민주투쟁을 포기한 안정이란 자살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 “반전두환, 반파쇼 투쟁의 대열로” 서울대학교 민주학우 일동 (1981.3.19)

1980년대 분신자살의 등장은 군사정권의 폭압성과 운동의 급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5·18민주화운동 이후 분신이라는 극한적인 방식이 본격적으로 등장⁸⁾했던 사실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학생운동에서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항거의 표시로 분신자살이 등장한 것은 1985년 9월 17일 경원대생 송광영 씨를 필두로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1987년 6월 민주화대투쟁 시기까지 전두환 정권에 항거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한 학생 총 9명 중 투신 4명, 목매 1명이었고 분신자살한 학생은 총 4명이었다. 전두환 정권이 등장한 이후 학생들의 산화형태는 할복, 투신, 음독, 목매보다는 분신자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⁹⁾ 1980년대 분신을 감행한 학생들에게 전두환 군부독재와 제국주의 미국에 대한 분노가 어떠했는지 <표 1>은 잘 보여주고 있다.

광주학살이라는 야만에 대한 분노, 민중에 대한 도덕적 부채의식, 민족과 민중에 대한 역사적 책무감은 분신자살자들의 유서나 유언에 잘 드러나 있다. 만일 80년 5월 광주가 없었더라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삶의

8) 전태일 열사의 분신(1970.11.13) 이래 2005년까지 총 76회의 분신자살 중 박정희 정권시기에는 1명, 전두환 정권시기 17명, 노태우 정권시기 36명, 김영삼 정권시기 13명, 김대중, 노무현 정권시기 각 5명, 4명이 분신자살을 감행했다.

9) 서울농대생 김상진(75), 서강대 김의기(80), 서울대 김대훈(81), 서울대 황정하(83) 등의 죽음은 할복이나 투신자살이었다. 1984년 11월 30일 박종만 씨(택시노동자) 분신자살 이후 비로소 85년 홍기일, 송광영의 분신자살을 필두로 91년 4월 박승희(전남대)에 이르기까지 분신자살은 자살항거에 있어서 압도적인 방법으로 채택되었다.

〈표 1〉 1980년 광주 이후 1997년까지 학생 분신자살 현황

발생 시점	이름	주요 요구 및 주장
85. 9. 17	송광영(경원대)	학원악법 철폐하고 독재정권 물러가라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
86. 4. 28	이재호/김세진 (서울대)	전방입소 결사반대, 반전반핵 양기고훈 “물러서지 않으면 분신하겠다.”→경고를 무시한 경찰의 폭력적 강제 진압
86. 5. 20	이동수(서울대)	전두환 처단, 미제 축출
87. 12. 9	박태영(목포대)	군부독재 타도, 제도교육 철폐
88. 5. 18	최덕수(단국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88. 6.	박래전(숭실대)	군사 파소 타도
89. 4.	남태현(서울교대)	조국의 자주·민주·통일
91. 4. 28	박승희(전남대)	노태우 정권 타도, 미국놈들 몰아내자
91. 5. 1	김영균(안동대)	공안통치 분쇄, 노태우 정권 타도
91. 5. 3	천세용(경원대)	축제와 체전 분위기에 들떠 있는 학생들에게 경증 6천 경원대 단결투쟁, 노태우 정권 타도하자
91. 8. 18	손석용(대구대)	군 입대 후 양기용병에 응한 자신에 대한 죄책감 조국통일과 진정한 해방 염원
93. 9. 8	이경동(광주교대)	임용고사 철폐, 주한미군 철수, 김영삼 정권 반대 세상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는데도 언론의 조작에 현혹되어버린 국민들 각성 촉구
93. 11. 10	한상용(광주교대)	초등교육 개혁과 교대교육 정상화, 참교육과 교육민주화
95. 12. 4	장현구 (경원대)	학교당국의 터무니없는 고소·고발, 고문수사, 교직원에게 의한 집단구타에 의한 정신적 충격·정신 질환
96. 4. 6	진철원(경원대)	최원영 재단의 살인적 학교운영 항의
96. 4. 16	황혜인(성균관대)	“분노하라 외쳤지만 분노하는 학우는 보이지 않고, 투쟁하라 외쳤지만 투쟁하는 학우는 보이지 않았다” 김영삼정권의민중탄압 에맞서 노동해방, 민중해방을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을 절규
96. 4. 19	오영권(여수수산대)	김영삼 타도, 미제 축출, 조국통일 원수
97. 2. 10	한상근(용인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호소하기 위해 분신

진로를 바꾸고 시간과 열정,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민주 역사의 제단에 바치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광주를 경험한 1980년대 학생운동가들은 어떤 세대나 운동 집단보다 슬픔과 분노의 감수성, 위기의 감각이 훨씬 높다는 특성을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분신이라는 극한적인 자기희생을 통한 저항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할 것이다(조현연 2002).

“빛고을이라 일컬어지던 광주가 하루아침에 핏고을로 변해버렸으며 우리의 영원한 우방이라고만 가르친 미제국주의는 만행을 목인, 방조의 단계를 넘어 동조를 한 것이었다 … 이제 80년 이후 살아있다는 이 유만으로도 먼저가신 이들에게 크나큰 빛을 진 우리는 뜨거운 마음으로 반동세력과의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단국대 최덕수 씨가 1988년 5·18 광주항쟁 추모식에서 낭독한 성명서 중

위의 인용문에서와 같이 5·18민주화운동 이후 한국의 저항세력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저항의 수준과 방식의 차이에서 그 강도를 달리 인식하게 되는데 보수정치세력의 ‘단극구조(unipolar structure)’ 강화는 운동참여자들에게 민주주의를 ‘적과 동지의 구분’이라는 상황적 맥락에서 이해하게끔 하였다.

“정녕 우리 민족이 외세에 지배당하고 그리고 소수 지배정권에 지배당하고 그리고 소수 독재정권에 의해 우리의 자주성이 말살되어감에 나는 순수하게 내가 태어난 이 땅을 사랑하는 피 끓는 젊음을 가지고 방관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그리고 전 민중이 자유롭게 형성되는 여론에 따라 우리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우리의 자주성을 세계만방에 고향으로써만 우리의 해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과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나는 최후의 순간까지 독재정권에 물러서

지 않고 항거할 것이며 이러한 투쟁이 전 민중에게로 확산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 _경원대학교 송광영 씨 유서(1985.9.17)

(2) 해석 틀의 급진적 재구성 – 저항의 생산구조로서의 대학

한국전쟁 이후 2005년까지 수치를 통해볼 때, 분신자살은 가장 폭압적인 시대이자 운동의 급진화와 대중화가 이루어지던 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시절에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곧 1980년대 중반 이후 자살저항에 있어서 분신자살의 빈도증가를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1991년 분신정국은 민주화와 꽤 거리가 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5공화국과 동일한 상황은 아니었으며, 죽음이 전달하는 상징적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죽음과 투쟁 중에서 택일해야 하는 극한적 갈림길은 아니었다(김정환 2002, 51).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분신자살이 거의 없었던 점,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시기에도 분신자살을 통한 대학생들의 항거가 전두환 정권에 비해 줄지 않았다는 점을 미뤄볼 때 분신자살이 결코 폭압기에만 발생한다고 단언하기는 힘들다. 권위주의 정권의 폭압적인 국민통치기인 1970년대에서 80년대 초의 자살저항에 있어서 분신자살은 아주 예외적인 자살방법이었다. 따라서 정권의 폭압성은 극한적 저항자살의 필수조건이 될 수 있지만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구조의 불안정이 자동으로 급진적 이념과 행위양식을 발흥시키는 정치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객관적 기회에 대한 주관적 해석 과정으로써 문화적 도전이 선행된 이후 급진적 사회운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저항자와 저항집단의 해석 틀과 행위양식의 변화는 불만스러운 현재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진단, 현재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신념, 변화 지향적 운동의 전략전술의 공유 외에도 기회와 자원의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분신자살의 경험적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인지·문화적 요소와 자원이 폭압성보다 분신자살 감행에 다른 어떤 요인보다 더 크게 작용하게 된 경우가 많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

는 분신자살로 기억되는 전태일의 죽음은 이를 잘 보여준다.

1970년대 열악한 노동환경을 함께 경험했던 전태일 열사와 일반 노동자의 근본적 차이는 인지적 차이, 즉 자신이 부당한 상황에 처했다는 인식의 차이와 관련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인지·문화적 담론 형성을 촉진하는 연결망과 공간의 존재 또한 분신자살의 빈도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전태일 열사의 죽음 이후 분신자살이 보여준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에서 분신자살이 운동의 레퍼토리가 될 수 없었던 것은 ‘인지·행위’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연결망의 미활성화와 관련이 있다.¹⁰⁾ 해석적 틀의 변화는 다양한 형태의 지속적이고 강렬한 구조적이고 심리적인 긴장상태의 경험, 일상적인 해석체계에 대한 불만과 새로운 설명체계를 모색하는 이데올로기의 존재, 이를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조직, 조직 내부의 정서적 유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¹¹⁾

상대적으로 1980년대 대학에서 새로운 급진적 해석 틀의 형성과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도전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존의 지배적인 문화에 대한 ‘대항문화적 도전(counter cultural challenge)’이 허용되는 ‘자유로운 공간(free space)’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이래 민중지향적 대학문화와 학생회 부활을 통해 더욱 확장된 각종 집회와 의례는 최소한 학생운동 참가자들에게 급진적인 정체성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일례로 박정희 정권이나 가장 폭압적인 전두환 정권 초창기보다는 학원자율화를 거치면서 공론장이 열린 자율화 조치 이후 급진적 이념 확산과 함께 분신자살이 급증한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학생들은 선후배 간 면접적 상

10) 노태우 정권 이후 2005년까지의 수치를 보면 학생(21명)보다 노동자(45명) 분신투쟁이 더 많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자의 분신자살 빈도가 증가한 배경에는 국가폭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구들이나 지배세력이 여전히 우리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구조적인 측면과 함께 87년 이후 노동운동의 이념과 조직적 성장을 반영하고 있다.

11) 운동 참여자의 해석적 틀은 운동의 목표, 수단 및 환경에 관한 인식적 정의(cognitive definition)로서의 운동의 언어, 의례 및 관행과 행위자들 간의 능동적인 관계의 망으로서의 조직,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통로에 영향을 받는다.

호작용과 대학 내외의 다양한 연결망을 통해 광주학살을 비롯한 군사정권의 만행과 불의(injustice)에 대한 도덕적 분노로 시작하여, 책임 소재에 대한 진단(diagnostic)을 통해 적과 우리라는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었다. 민중에 대한 부채의식과 제도정치의 허약함은 학생들로 하여금 불만스러운 상황을 타개할 강력한 대행자로서 역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였고 국가폭력에 효과적으로 저항하기 위한 운동문화를 가능케 만들었다.

구조적 긴장과 모순에 대한 인지·해석적 틀을 제공하는 데 있어 대학 내 형성된 인적 관계와 네트워크가 해석적 틀의 변화에 결정적 영향을 준 전기(turning point)로 볼 수 있다. 책이나 예술, 공연 등을 통한 감동적인 장면과의 조우, 역사적 사건과의 조우, 학내에서의 특정한 역할, 졸업 이후 사회 진출을 통한 역할 취득과 같은 삶의 전기는 학내외의 다양한 모임(서클, 학회, 학생회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학생운동의 이념의 수용과 분신 자살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때 급진이념의 수용에 있어서 동아리(서클), 학생회, 동문회라는 인적 네트워크와 학습의 영향은 가장 중요했다 할 수 있다.¹²⁾ 시·공간적으로 한정된 영역(학교)에서의 접촉은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미 틀을 증폭하고 확장하는 데 유리하였다. 이러한 공동체성과 학생의 계층적 특징으로 인해 어떤 특정집단에 종속되지 않고 유동적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지적 경직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인식의 전체성을 강화할 수 있었다(이원술 1985, 173-175; 최문성 1988, 119 재인용).

기본적인 민주주의 절차와 규칙을 제정할 수 없는 즉, 자율적인 정치·사회적 공간 자체가 군부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제약되는 상황에서 적의에 가득한 운동문화(적대적인 운동문화)와 변혁적 이념 수용을 용이하게

12) 심리적 요인이 단독으로 행동주의를 일으킨다기보다는 가치를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가 권력의 정당성, 또는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사회구조적 모순 등의 요인들이 연결망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행동주의가 격화된다고 할 수 있다.

하였다. 불세비즘과 주체사상의 수용이 이루어진 기본 토대 위에 형성된 ‘적대적 운동문화’와 정통과 명분을 우선시하는 ‘경쟁적 운동문화’의 존재는 자살을 통한 저항방식에도 변화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1980년~90년대 중후반 학생운동권은 ‘전두환과 미국은 집합적 유죄이자 악의표상(독재, 자본, 친미(일)·제국주의=비정상국가)’, ‘민중(민족)은 집합적 무죄이며 선의표상(반일·반미·통일조국=정상국가)’이라는 ‘세습적 희생자 의식’에 기초한 ‘기억과 전선(戰線)의 정치학’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내면화했다. NL·PD 등 당대 운동권은 학습 외에 기념, 기념비, 의례, 찬가 등을 통해 혁명의 당위성과 민중주의를 자각시키며, 학생운동가 개인의 감정 깊숙한 곳까지 뿌리내리게 했다.¹³⁾

이들은 마치 일상에 대한 민중주의적 의미부여가 다른 세계관들보다 월등해야만 된다고 확신한 것과 마찬가지로 믿을 만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NL론을 수용한 학생들에게 민족주의는 “완성된 민족의 세속화된 낙원으로서 ‘성화’”를 위한 순교를 요구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하나의 세계관이 될 만한 의미를 만들어 주었고, 따라서 민중을 위한 전사와 순교자들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나타났다. 그토록 열망하던 민중을 위한 순교자가 되어 위험을 감수하는 모습은 함께 항거하지 못한 죄의식과 함께 반제민중주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순교에 대한 인식은 PD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사는 역사의 외침을 듣는 자, 혁명의 깃발을 든 자, 일어서 투쟁하는 자, 반동의 쇠사슬을 끊어낼 불꽃과 같은 존재로, 혁명의 투혼으로 세계를 변혁하는 동시에 반역의 무리를 다스리는 존재로 설정되었다. ‘불의’에

13) 기념(commemoration)은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사건 등을 생각나게 하며, 기억을 새롭게 하는 모든 행위이다. 기념행위는 근대 국민국가가 출현하면서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활용되었다. 국민국가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국가와 민족에 대한 정체성과 동화를 창조 혹은 강화하거나, 저항을 예비하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통제하고 규율할 수 있는 인간을 양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왔다(정호기 2007).

대한 도덕적 감정에서 출발하여 민중에 대한 헌신과 믿음, 메시아적 소명감으로 신념이 상승되는 과정은 포획된 것, 수동적 수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급진적 이념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자살저항은 그것이 희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희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지니는 기여, 특히 역사의 기여였으며 그 기여를 통해 오히려 존재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세계관적 믿음과 실천적 믿음이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정체성의 향유다. 이처럼 급진적 이념의 수용은 “내가 의미 있게 산다는 믿음, 내가 의미 있게 존재한다는 믿음을 제공(이종영 2002, 165)”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믿음에 기반을 둔 운동참여자들의 주체성은 민족(중)적인 상징에 의해 구성되었고 그 상징은 열사, 전사, 어머니라는 세 상징과 연결되었다. 운동참여자의 희생은 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석하는 틀로 제공되었고 사건 하나하나의 ‘개별 사건’이 아니라 체제의 속성을 드러내는 총체적 구조의 사례로 자리매김 되면서 적대와 저항의 재생산 구조를 만들어 나갔다.

급진이념과 적대적 운동문화의 확산은 예외적인 자살방법¹⁴⁾이자 극한적 저항형태인 분신자살이 운동의 레퍼토리로 자리 잡은 것과 대단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것이다. 급진적 운동이념이 약화되고 대학 내 운동 네트워크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1990년대 후반 이후 분신자살이 급속히 감소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학생운동의 절정기를 거쳐 학생들의 탈정치화가 나타난 1990년대의 분신자살은 급진이념의 퇴조와 운동의 위기를 반영한다. 1980년대 분신자살이 시대와 이념을 선도하는 의미가 상대적으로 강했다면 1990년대는 급진적 이념으로부터 멀어지는 대중, 구조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한 일상, 그 일상으로의 후퇴를 막으려는 욕구의 표출이라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억압의 수준이 높은 사

14) 권위주의 정권의 폭압적인 국민통치기인 1970년대에서 80년대 초의 자살저항에 있어서 분신자살은 아주 예외적인 자살방법이었다.

회뿐만 아니라 원자화된 대중이 침묵과 순응의 사회에서도 끔찍한 분신자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열사의 탄생과 저항 공동체

(1) 분신자살의 몇 가지 특징

분신자살은 대체로 “내부에 침잠되어 다른 사람과 단절된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의미 있는 사회적 행위이며 소통을 지향(박형민 2008)” 하는 준비된 행위라는 특징을 갖는다. 물론 소통적, 사회적 행위라는 공통성에도 불구하고 준비성과 관련해서는 예외적인 경우가 없지 않다. 공권력과 자본의 물리적 억압에 직면한 긴박한 투쟁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분신자살이 그러한 예라 할 수 있다.¹⁵⁾ 따라서 분신을 감행한 사람들의 주관적 상황 판단에 따른 사적 차원의 실존적 결단이라는 측면을 「누적된 분노에 대한 응축된 폭발, 돌발적 표출」과 「준비된 정치적 자살」로 크게 구분(조현연 2001)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정한 설득력을 가진다.¹⁶⁾ 「준비된 정치적 자살」은 노동자·빈민보다 상대적으로 학생운동가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배경에는 노동자·빈민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대립적 노사관계, 빈민과 권력과의 관계에 기인한다. 1980~90년대 노동자와 빈민의 분신자살 사례 중 일부는 구사대나 공권력의 물리적 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일종의 경고 수단인 성격을 갖다가 이를

15) 예를 들면 1988년 6월 29일 노조사무실에서 5명이 단식농성 중 어용노조 대의원의 각목 습격에 맞서 분신한 강원단광 노동자 성완희, 1990년 8월 30일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의해 항의 분신한 금강공업 원태조·박성호, 1994년 3월 11일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와 조합원 탄압에 항거하며 상무와 함께 분신한 최성목, 97년 노점철거에 반대하여 분신한 양승진의 분신자살은 공권력 혹은 구사대와 대치과정이나 혹은 비인간적 탄압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들이라 할 수 있다.

16) 전략적 행위로서의 자살, 준비된 자살을 가름하는 데 유서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견해도 있다.

무시한 채 폭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표출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절박한 심정에서 감행한 노동자·빈민의 분신자살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라기보다는 누적된 분노의 폭발로 보아야 한다.

분신자살의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보면 대체로 공개적인 형태로 감행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분신자살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분신을 감행하는 것은 온몸에 불길이 싸여 허덕이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강렬한 인상을 준다. 분신자살자가 자신의 죽음을 공개한다는 사실은 그러한 시각적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분신은 신체에 치명적인 자기 파괴를 수반함과 동시에 죽음의 가능성도 가장 높다. 따라서 그것은 용기의 표현이 되었으며, 그 효과도 엄청나게 커지게 마련이었다(노성환 1995, 437).

분신자살의 또 다른 특징은 집합적으로 구성된 자신의 인식과 달리 대중의 인식과 행동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발생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예컨대 1991년 분신정국은 1987년 6월 항쟁의 신비화 속에서 조작됐던 ‘일상예의 안주’가 지배적 가치로 형성되는 상황에서 분신이라는 극한적인 자기희생을 선택했던 것임을 보여준다고 하겠다.¹⁷⁾

“정권타도와 함께 힘썼으면 하는 마음에 과감히 떠납니다. 불감증의 시대라고 하는 지금 명지대 학우의 슬픔과 연민을 가지다 다시 제자리로 안주해 커피나 콜라를 마시는 2만 학우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7) 김윤철(2002, 108-109)은 91년 5월 정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91년 5월 투쟁은 87년 6월 항쟁이 오직 군부독재 이전에 존재했던 ‘형식적인’ 민주주의 제도, 즉 대통령 직선제만을 부활시킨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대한, 그리고 그것이 결코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주의적 권리들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오히려 그런 ‘가짜 민주주의’에서 민중은 더욱 더 고통받는다는 현실에 대한 ‘자각’에서 터져 나온 ‘진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슬퍼하며 울고만 있지 말아라. 그것은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 너희는 가슴에 불을 품고 싸워야 하리. 적들에 대한 증오와 불타는 적개심으로 전선의 맨 앞에 나서서 투쟁해야 하리. 그 싸움이 네 혼자만이 아니라 2만 학우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고 하는, 함께 하는 싸움이어야 하리. 내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니 힘들고 괴롭더라도 나를 생각하며 힘차게 전진하라. 내 서랍에 코스모스 씨가 있으니 2만 학우가 잘 다니는 곳에 심어주라, 항상 함께하고 싶다.”

전남대 박승희 학생의 유서는 학생들의 시위가 일시적인 저항으로 끝나버릴지 모른다는 우려감, 일상으로부터 철수하려는 학생들의 퇴로를 차단하고자하는 의지가 잘 드러나 있다.

(2) 분신자살과 운동집단의 상호작용

자살자와 귀속집단의 상호작용이라는 경험적인 사례¹⁸⁾를 통해 자살항거와 저항공동체 활성화 효과를 가져 오는 인과과정(mechanisms)을 다음과 같이 유추해 볼 수 있다.

첫째, 분신자살은 저항공동체와의 조직망을 통해 자발적 죽음을 계기로 한 제반 정치, 경제, 사회체제의 모순과 불의가 존재한다는 의미체계를 제공한다. 열사의 죽음은 곧바로 그가 속해 있던 운동조직을 통해 새롭게 재조명된다.

열사정신 계승은 “국가의 폭력과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발생하는 인간착취, 계급착취를 극복해가는 과정이자 당대의 사회적 관계에서 형성된 모순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설정되며 이런 투쟁을 만들어 나갈 사회적 주체들을 형성하고, 현실적으로 저항하는 주체들의 역사의식을 복원하

18) 경험적 사례와 자료는 각 대학 추모사업회와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려는 노력은 열사정신 계승운동을 사회적 운동으로 전화시켜 나가는 과정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부산경남울산 열사정신계승사업회 2006)”으로 위치 지어진다.

둘째, 자살항거는 그 행위자가 속한 동료집단으로 하여금 체제에 대한 분노, 집단 구성원 간의 연대감, 그리고 자신의 소극성이 동료를 죽음으로 몰고갔다는 죄책감과 수치심 같은 감정을 유발시키고 이를 통해 냉소적인 행위자들의 의식성과 행동성을 고양시킨다.

“심장이 펄펄 끓어오를 때 양심이 꿈틀거릴 때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 옆에서 힘들어하는 동지들이 있는데 나는 나서지 못하고 비겁자처럼 놀고 있다.”

_경원대학교 전철원 씨가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투쟁 100일째쓰글'
(1996년 3월 23일)

“부모님의 얼굴, 동지들의 얼굴이 눈앞에 스쳐간다. 하지만 보다 많은 이들이 노동해방을 위해 정권타도를 위해 자본가 타도를 위해 이 세상의 변혁을 위해 투쟁하기만을 난 바랄 뿐이다. …이제 … 그 실천을 동지들이 해주길…”

_성균관대 황혜인 씨의 유서 중에서

“참된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무척 망설이다 대답도 못한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대답을 할 수 있다. 참된 삶이란 불의를 보고도 그것을 외면하고 타협하는 삶이 아니다. 정의로운 삶 바로 나의 심장에 묻힌 양심 꺼내어 불의를 깨기 위한 삶이다. 또한 실천이다.”

_ 1999년 발간된 용인대 한상근 씨 추모문집 중

“열사여 고이 잠드소서! 먼저가신 열사들의 무덤 앞에서 다짐하신 그대의 말씀 산자의 따름으로 외침으로 이어가겠노라고! 아직 끝나지 않는 싸움을

해나가겠노라고! 열사여! 해방의 민들레로 부활하소서.”

—광주교대 이경동 씨 추모집 〈민들레의 투혼〉 중

“000 열사님께서 민중에게 남기신 말씀은 제 자신을 더욱 채찍질하면서 보듬어 주셨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고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며 암울하다면 암울한 이 세상을 열사가 꿈꾸던 그리도 민중이 꿈꾸는 세상으로 바꾸라시던 열사의 뜻을 감동을 주는 것을 넘어 숭고하기까지 합니다 … 열사의 뜻을 백분지 일도 실천하지 못한 초라한 저를 전율케 하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셨습니다. 아아 … 먹구름 하나 없는 청명한 가을에 코스모스를 위해 불어주는 청정한 바람 같은 열사여 … 바람이 멎은 후에도 열사의 혼은 코스모스에 긍지와 영속을 불어 넣어주시는군요 … 열사가 떠난 뒤안길을 이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 생각하고 열사의 혼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자율전공학부 07학번 000

셋째, 의례와 문화적 활동을 통해 기억을 주기적으로 되살려 상징적 및 정서적 효과를 영구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기억’은 폭력에 맞서는 가장 마지막 무기이다. 기억은 ‘과거’를 소재로 한 ‘미래’를 향한 ‘현재’적 투쟁으로서 ①독재와 억압, 학살의 기억, ②영웅적인 투쟁의 기억, 해방을 향한 희생과 헌신의 기억 ③독재와 억압, 학살에 대한 ‘침묵’의 기억으로 설정된다. 과거의 억압과 해방을 위한 기억을 사회적 기억으로, 일종의 헤게모니적 기억으로 위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죽은 자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의 삶과 저항의 기억을 사회적 기억으로 만들고자 추모제, 추모집, 추모곡¹⁹⁾ 등을 만들기도 한다. 범국민추모사업은 열사 묘역 참배 및 순례 교육, 민주열사·의인 독서 감상문 모집, 거리 전시, 거리굿, 추모문화공연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 많이 배치된다. 추모제는 개회선언, 민중의례, 내빈

19) 용인대 학생들은 1996년 분신한 학생을 위해 문집 「애국학생 헌상근」을 1999년 발간하였다. 그에 대한 추모곡으로는 ‘승리의 눈물(글 이은주, 곡 정용두)’이 있다.

소개와 대회사, 추모사, 추모공연, 결의문 낭독, 유족인사, 분향과 헌화, 대행진이라는 형식이 거의 고정화된 듯하다. 추모제의 중심 주제는 그해의 주요 정치적 과제를 선정한다.

추모행사는 각 학교별, 동아리별로 진행되기도 하고 매년 범국민추모제와 열사정신 계승대회로 연합하여 진행하기도 한다. 나아가 기억과 저항의 네트워크인 추모사업회를 통한 저항공동체의 조직망을 제공한다.

추모사업회는 열사의 삶과 죽음, 그 지향성을 가장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사람들로 구성된 ‘운동체’로 열사와 민중 간의 가교로서 열사들의 투쟁을 현 운동 조직이 실현할 수 있도록 나침반 구실을 하는 조직으로 규정된다. 추모사업회는 죽은 열사의 이름으로 산 범법자를 심판하여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자신의 역할로 설정하고 있다.

현재 민족민주열사추모사업 관련단체는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와 추모연대,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 등의 전국 조직이 있다. 이외에 김세진 추모 모임, 김윤기 기념사업회 등 개별 추모·기념모임을 합치면 100여 개가 넘는 조직이 전국적으로 연결망을 형성해서 활동하고 있다.²⁰⁾ ‘기억의 저항네트워크’는 열사·희생자추모 및 기념주간 행사 개최와 자료집, 유고집 발간사업, 각 단위 사업회의 지원과 참여, 미조직 열사추모 기념 사업회 조직, 열사·희생자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사업, 민족민주단체와의 연대사업, 범국민추모사업회 건설사업 등을 통해 기억의 영구화와 저항네트워크를 확대하려 한다. 크고 작은 추모사업회는 자살 항거자의 가족, 자살항거자의 소속 공동체, 예컨대 학교, 노조, 지역단체 사이에 연결망을 형성, 열사의 정신인 ‘저항의 지속성’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이처럼 자살항거는 ‘기억의 영구화’라

20) 자세한 내용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추모연대(<http://www.yolsa.org/>)에서 참조바람.

는 의식적 활동을 통해 공동체는 저항성과 조직력을 강화시키며 ‘행위와 집단’ 간의 상승작용이라는 메커니즘을 낳는다. 분신자살자에 대한 정신 계승은 특정 시기의 특정한 이슈와 결합되는 한편 역사적 상징과 담론, 자원을 동원하여 그것을 현 시기 저항담론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4. 마치며

이 연구는 분신자살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정의에 대한 재검토에서 시작하여 저항자살 중 분신자살이 등장한 배경, 분신자살의 성격과 특징, 분신자살과 저항네트워크 등 분신의 구조와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분신자살의 개념적 정의에서는 정치적 자살로서의 분신, 퇴장을 통한 저항의사표출 전략으로서의 자살이라는 측면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자살의 성격규명에 있어서는 행위이론이 중요하게 다루는 전략개념에 따라 자살의 병리적 측면을 비판하면서 분신자살이 강한 소통성과 쌍방향성을 지향하는 자살이었음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다양한 사례에 근거한 분신자살의 특징을 해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행위자와 운동 집단 간에 공유하는 집합적 감정과 신념에 상호작용하는 집합행동적 성격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학문적으로 정체된 분신자살에 대한 연구를 재개했다는 의의는 있지만 분신자살의 메커니즘을 해명하기에는 많은 한계와 문제가 있음을 고백한다. 따라서 분신자살 연구의 학문적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결론으로 제시하며 마치하고자 한다.

첫째, 분신자살의 구조와 메커니즘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설명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신자살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이 요구된다. 분신의 결행은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 형성을 복잡한 관계의 구성적 결과물이자

객관적 구조나 자원, 제도로만 설명할 수 없는 문화적 현상이다. 따라서 분신자살이라는 저항행위를 결행한 사람의 개인적·사회적 의미 파악, 주관적 의식의 심층적 이해에 최대한 접근해야 한다. 분신자살 연구는 이처럼 개별 분신자살자에 대한 연구가 종합화될 때 더욱 선명하게 규명될 수 있다.

둘째, 방법론과 자료수집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어떤 학문분야를 막론하고 연구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단순히 연구대상을 기술하고 이해하는데서 출발하지만 점차 일반성을 띤 법칙을 찾아내는 데까지 발전한다. 과거 분신자살에 대한 연구가 과도한 정치적 편향성과 목적성을 강조한 역사기술적 연구에 그쳤다면 장기적으로는 분과학문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보다 경험적이고 분석적인 연구로 나아가야 한다. 연구 시각의 정립문제, 적절한 이론 틀 내지 접근법의 적용과 개발이 시급하다.

셋째, 분신자살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기존자료에 대한 엄밀한 분석 및 활용이 필요하다. 운동진영에서 발간한 자료는 분신자살자의 행위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에 치중함으로써 행위의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의도를 생략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함께, 이미 알려진 자료라도 가치를 재평가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료들은 문자로 기록된 것을 포함해 그렇지 않은 것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국제적인 비교연구의 필요성이다. 선행연구는 분신자살에 대한 비교분석이 결여된 채, 이른바 '한국적 현상'을 예외 없이 강조하고 있다. 체계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자살저항의 동학에 대해 탐구하고 한국적 특징을 해명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손희

참고문헌

- 91년 5월 열사 10주기 추모사업회. 2001. 「1991년 5월 투쟁, 죽음과 폭력의 정치를 넘어」. 5월투쟁 학술심포지엄.
- 91년 5월 투쟁청년모임. 2002. 「그러나 지난 밤 꿈속에서… 91년 5월」. 이후.
- 강정인. 2001. “91년 5월투쟁과 죽음: 저항주체의 ‘내면’ 읽기.” 『1991년 5월 투쟁, 죽음과 폭력의 정치를 넘어』. 91년 5월. 열사 10주기 기념사업회. 23-39.
- 김귀정열사10주기 추모사업회. 2001.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투쟁」.
- 김동춘. 1997. “1980년대 민주변혁운동의 성장과 그 성격.” 학술단체협의회 편. 『6월 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 당대.
- 김동현. 1991. “시사특집: 김기철씨의 분신과 대필파동.” 월간사회평론길. 228-233.
- 김영균 열사 추모사업회. 2001. 「행복해야 돼, 이쁜 꿈 꾸」. 2001.
- 김영정. 1986. “미시사회학적 집합행동 이론의 고찰.”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65-80.
- _____. 1988. 『집합행동과 사회변동』. 현암사.
- 김윤철. 2002. “91년 5월투쟁, 그 열려진 ‘역사적 의미짓기’ 의 장으로 들어서기.” 91년 5월 투쟁청년모임. 『그러나 지난 밤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 이후. 104-125.
- 김재은. 2003. “민주화운동에서 구성된 주체위치의 ‘성별화’ 에 관한 연구 (1985-1991).”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정환. 1998. 『대중과 폭력』. 이후.
- 김지하. 1991. “짧은 벗들!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조선일보』 (91/05/05).
- 김효정. 2002. “집합행동에 대한 사회운동론적 연구.” 성공회대 사문연 포럼.
- 노성환. 1995. “한국 분신의(焚身) 상징적 의미.” 비교민속학회. 415-438.
- _____. 2000. “일본분신자살에 관한 연구.” 동아시아일본학회. 『일본문학연구』.

- 일본문학연구 제2집, 271-292.
-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부산경남울산 열사정신계승사업회. 2006. 『열사의 정신을 배우고 익혀 실천하기 위한 학교』.
-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2005. 『끝내 살리라』.
- 박광배·이연희. 1991. 「대학생의 민주화 욕구와 분신 자살에 대한 태도에 관한 소연구」. 한국심리학회. 359-364.
- 박형민. 2008. “자살행위에서의 ‘소통적 자살’의 개념화.”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역사 통권 제79집』 129-160.
- 서울대 민주열사추모회. 1984. 『산자여 따르라』. 거름.
- 성공회대학교출판부. 2000. 『한국 민주화운동의 전개와 구조』.
- 송광영·천세용 연대 추모사업회. 2007. 『22주기 송광영 열사 추모자료집』.
- 오오꾸보 고지. 2008. “삶의 전기.” 『일상생활의 사회학』. 한울.
- 에밀 뒤르켐. 김충선 역. 1994. 『자살론』. 청이출판사.
- 이규동. 1991. “자살도 전염한다.” 『월간조선 1991년 6월』.
- 이기봉. 1997. “이땅의 저주 받을 분신자살 언제 마감될 것인가.” 『한국논단』 250-256.
- 이종영. 2002. 『내면성의 형식들』. 새물결.
- 이창언. 2008. “한국 학생운동의 급진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혜선·육성필·배진화·안창일·이규동. 2008. “자살관련행동의 명명과 분류.” 『한국심리학회지』, Vol. 27, No.2. 331-349.
- 임희섭. 2001.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의 이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 전재호. 2000.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본 민주화운동-제1공화국에서 제5공화국까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2(2). 147-178.
- 정근식. 2003. “민주화운동과 기념: 민주화운동을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학술단체협의회. 『2003년 학술심포지엄: 한국 민

주화운동의 쟁점과 전망』. 199-1220.

정호기. 2007. “저항의례의 국가화와 계승 담론의 정치·5·18민중항쟁의 추모 의례.” 한국산업사회학회. 『경제와 사회』 통권 제76호. 10-38.

조대엽. 1999. 『한국의 시민운동: 저항과 참여의 동학』. 나남.

_____. 1996. “한국 민주화운동의 쇠퇴와 정치적 기회구조.” 『동북아 연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1-224.

조현연. 1999. “‘의문사’ 사건의 정치사회적 배경과 진상규명의 정당성.” 민족 민주열사·희생자 추(기념)단체 연대회의. 19-29.

_____. 2000. 『한국 현대정치의 악몽-국가폭력』. 책세상.

조희연 편. 2002. 『국가폭력·민주주의 투쟁, 역사적 회생』. 나눔의 집.

_____. 2003. “한국의 민주주운동, 87년 이전과 이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학술단체협의회. 『2003년 학술심포지엄: 한국 민주화운동의 쟁점과 전망』. 145-176.

최장집. 1993. 『한국 민주주의의 이론』. 한길사.

_____. 2003.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최형익. 1999. “1980년대 정치. 그 구조의 전환과 전환의 구조.” 『1980년대. 혁명의 시대』. 새로운 세상.

眞鍋祐子 著. 1997. 『烈士の誕生』. 東京: 平河出版社.

Baechler, J. 1975. *Suicides* London: Blackwell.

Maris, R. W. 1969. “Social Force in Urban Suicide.” *Homewood, III.* :Dorsey.

Neil J. Smelser. 1962.. “Theory of Collective Behavior.” New York: Free Press.

홈페이지. 민주노총, 유가협, 추모연대, 전국연합, 민중해방열사 최덕수 사이버 기념관, 송광영·천세용 연대 추모사업회.

투고: 2009.9.30 심사: 2009.10.20 확정: 2009.10.30